

## ◆ 1,2월 교회일정

1월 25일 - 신입(전입)집사 교육  
 2월 1일 - 온가족예배 & 교회학교 진급식  
 2월 2일(월)-(4일) - 뉴질랜드 지방회 및 수련회  
 2월 7일(토) - 새학기 맞이 온가족새벽기도  
 2월 8일(주일) - 첫 FAM 모임  
 2월 15일(주일) - 구정맞이 야외예배

## ◆ 교회소식

-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오늘 예배와 교제 후에 **신임(전입)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 다음주는 온가족예배로 드러지고 교회학교 진급식이 있습니다.
- 2026년 **신년기도제목표**에 기도제목을 적으시고 헌금함 또는 담임목사에게 제출해주세요.
- 1년 1독 성경통독**을 합시다. 성경통독표를 가져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표에 체크하시고 제출해주세요.
- 신구약 성경을 한 눈에 배우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성경공부가 2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 뉴질랜드 지방회가 2월 2일(월)-4일(수)까지 있습니다.
- 예배·봉사위원 수고에 감사드리며 2월 예배·봉사위원을 위촉합니다. 안내 : 조옥희 집사 / 뒷정리 : 박정래 장로 / 헌금계수 : 윤정내 집사 / 주방봉사 : 목회자 팸

## ◆ 예배·봉사위원

|       | 대표기도  | 성경봉독  | 찬양인도  | 애 찬   |
|-------|-------|-------|-------|-------|
| 1/25  | 김숙연사모 | 강주희사모 | 강경문목사 | 허옥자권사 |
| 2/1   | 박정래장로 | 송준우집사 | 이정미권사 | 조옥희집사 |
| 2/8   | 김종근집사 | 윤선옥권사 | 추동완목사 | 이금자권사 |
| 안내위원  |       | 헌금계수  | 뒷정리   | 주방봉사  |
| 윤선옥권사 |       | 전명길집사 | 강경문목사 | 목회자   |



## 사명선언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내게 주신 은사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가정, 교회,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다.

To be obedient to God's calling, to be disciples of Christ, and to love and serve one another with the gifts given to us. We build up our homes, churches, and communities into the kingdom of God.

## ◆ 지난주 헌금 통계 - 1월 18일

|       |          |
|-------|----------|
| 주일헌금  | \$180.00 |
| 십 일 조 | \$100.00 |
| 감사헌금  | \$20.00  |
| 온라인헌금 | \$500.00 |
| 헌금통계  | \$800.00 |

## 온라인 헌금구좌 안내

ANZ 060821-0515650-00 / The Logos Church  
 Particular - 이름 / Code - 헌금코드

Reference - 헌금종류(생략가능) : W 주일헌금 / TI 십일조 / TH 감사헌금 / SP 특별헌금 / SE 절기헌금

\*헌금코드가 없으시다면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시 헌금목적을 기재해주세요.

(ex. 선교목적 SP-mission, 교육부행사 지원 SP-edu)

## ◆ 로고스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예배   | 매 주일   | 오후 2시      | 예 배 실  |
|---------|--------|------------|--------|
| 아동부 예배  | 매 주일   | 오후 2시      | 소예배실   |
| 찬양팀 연습  | 매 주일   | 오후 1시 00분  | 대예배실   |
| 예배위원기도회 | 매 주일   | 오후 1시 50분  | 기 도 실  |
| 새벽기도회   | 화-금    | 오전 6시 - 7시 | 소예배실   |
| 수요예배    | 매주 수   | 오후 7시 30분  | 소예배실   |
| 학생부 모임  | 매주 금   | 오후 6시 30분  | 교육목사가정 |
| 큐티모임    | 매주 화   | 오전 10시 30분 | 담임목사가정 |
| 큐티모임    | 매주 금   | 오전 10시 30분 | 성도가정   |
| 구역 모임   | 구역별 지정 |            | 성도가정   |

통권 제 1016호

2026년 1월 25일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 로고스교회

세대를 잇는 교회, 함께 자라는 공동체  
 (에베소서 4:16)



## 섬기는 일꾼

담임목사 : 추동완(Pastor. Choo Dong Wan)

☎ 022-358-2622

교육목사 : 강경문

동역목사 : 김영출(선교) 배태현

명예장로 : 박정래 조영만

반 주 자 : 임은혜

교회주소 : 409 Greers Road (Cnr. Greers & Eastling St)  
 Bishopdale Christchurch, New Zealand

## ◆ 주일예배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기도 Prayer

김숙연 사모

성경봉독 Bible Reading

강주희 사모

전도서 4:9-12

교제 Sharing of Shalom

설교 Sermon

추동완 목사

삶을 잇는 믿음(Faithbridge)

결단송 Praise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

축복기도 Benedicton

(\* 표시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립니다.)

## ◆ 교회학교 주일예배

통합예배

## ◆ 수요일예배

1월 28일(수) 저녁 7시 30분

찬양 : 강경문 목사

말씀 : 추동완 목사

## ◆ 새벽기도

오전 6시 (화-금)

민수기 강해

추동완 목사

## ◆ 묵상질문

1. 나는 요즘 넘어졌을 때 혼자 버티고 있는 영역은 없나요? 신앙, 관계, 가정, 일, 감정의 영역 중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디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것을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2. 내 신앙은 ‘배처럼 오가는 신앙’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다리처럼 연결된 신앙’에 더 가까운가요? 필요할 때만 공동체를 찾고, 다시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위기가 왔을 때, 나의 신앙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3.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때, 사람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는 잘 인식하고 있나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혹시 “내가 일어섰다”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손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잊고 있지는 않았나요?
4. 나는 지금 누군가를 붙들어 주는 다리로 서 있는가? 지금 내 곁에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나도 누군가의 손이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는 교회

## ◆ 금주의 묵상

### “교회가 건강하려면”

200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이혼의 주요 원인은 가정불화와 배우자의 외도인데, 그중 1위가 가정폭력이다. 이혼의 원인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과 여성의 사회참여도, 핵가족화, 사회윤리의 과도기적 성격 등이 포함된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필수다. 교회도 이혼에 대해 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살필 필요가 있다. 이혼은 우선 자녀와 친족에게 상처를 입히며,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파생시킨다. 이혼한 여성이 교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힘들어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다.

교회는 성경에서 이혼을 금하고 있다는 피상적이고 율법적인 논리로 가정폭력과 이혼 위기에 놓인 교회 여성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외면하는 무정하고 상투적인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없는 것일까?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 여성은 관심, 이해, 존중, 공감, 헌신을 바라고 남성은 신뢰, 인정, 감사, 찬성, 격려를 바란다고 한다. 남편에게 부탁할 때는 ‘I’ 메시지로 명료하게 청유형으로 부탁하는 게 부부싸움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

가정폭력과 이혼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 자존심을 조금 양보하고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편들은 남자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가정을 지킬 것인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면 한다. 아내들에게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

강호숙, ‘여성이 만난 하나님’ 중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에 빛이 되리라  
시편 119:105